

종부세 최고세율 3.2% 상향 '관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최고세율을 3.2%까지 높이는 정부 원안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향은 완화됐다.

또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을 준조항일도 2년 간 더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에서 열어 이 같은 기획재정부위원회 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2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소득세법을 보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등록자 필요경비율을 정부인인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미등록자 50%는 그대로 유지했다.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안보다 임대주택등록자 부담을 높였다는 평가다.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시행은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2년 간 시행하려고 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 관리·감독체계가 법적화 된 후 시행하겠다는 게 국회 취지다.

소득세·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건 국회 통과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부가세 면제 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해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향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에서 20%로 완화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정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15%로 확대했다. 이로써 연간 3조3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전망이다.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등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조정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 한도도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를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당초 정부안은 각각 700만원, 2년 이

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 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각각 7%와 3%였다.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공제율도 종전의 대기업 1%, 중견기업 3%에서 5%, 10%로 각각 확대했다. 수도권 과밀 외 지역의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정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15%로 확대했다. 이로써 연간 3조3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전망이다.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등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조정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 한도도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를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당초 정부안은 각각 700만원, 2년 이

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년 연장돼 현행처럼 조합원·회원을 비롯한 준조합원까지 적용된다. 정부안은 농·어민인 조합원에 한해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해 2022년 5% 분리과세로 전환한 후 2023년엔 세율을 9%로 높이고, 가입 시 농어민 요건이 필요없는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5%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돼 있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를 추가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녹음할 수 있도록 국제기법법을 개정하려던 정부안은 철회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제회의의 빈대에도 도입을 강행하던 사안으로, 도입이 예상되는 단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 판단이다.

인지세를 매기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은 정부안의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높이며,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 발령분부터로 1년 유예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은 3년 유예하되, 그 이의 품목은 내년부터 감면율을 매년 10%포인트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여행사 편의 증진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통과된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부 광주전남청, 지원기관과 스크럼방식 지원강화 위한 결의 다짐

23개 중소기업장 등 100여명 참석 성과보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지난 6일 광주 위더스 웨딩홀에서 23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관장과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한해 동안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이 스크럼 방식으로 지역 현안에 신속 대응하여 노력한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에도 더욱더 정진하자는 결의를 다지고자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 보고회는 유공자 포상, 기관 별 우수사례 발표와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포상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문영환 과장 등 3명이 중소기업 우수기관상을, 광주지방조달청 최동환 주무관 등 12명이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지원정책상을 수상하였다.

이어서 표창을 수여한 기관 유공자들은 각 기관에서 수행한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행사도 진행되었다.

지원정책협의회 우수 유공자로

장관 표창을 수상한 광주신용보증재단 문영환 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인 유가농 과자를 생산하는 (주)더하이(대표 김정기)에 자금 및 법률 자문서비스 등을 통해 높은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열승우 과장은 전자부품용 내화세라믹을 생산하는 (주)와이제이씨(대표 배지수)의 경우 기업진단 임직원 연수, 수출마케팅 등 맞춤형 연계지원으로 창업부터 도약까지 지원공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성과보고회를 통해 기업지원 노력 등을 공유하고 정책홍보, 규제개선 의견수렴의 창구로 활용한다면 지원기관-기업 간 효율적인 소통체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며, "향후에도 지원정책협의회가 기관 간 스크럼방식을 통한 맞춤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뉴스스

'양꼬치맛 조미김-어묵면 스파게티'...해외 입맛 잡았다

해수부, 신규 수출유망상품 개발

해양수산부는 10일 '2018 수산물 수출유망상품화사업'의 최종 성과 평가회를 개최해 새롭게 개발한 수산물 수출유망상품의 수출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해수부는 올해 2월부터 '2018 수산물 수출유망상품화사업'을 추진해 수출유망상품 개발부터 현지 시장조사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 사업 지원대상으로는 양꼬치맛 조미김, 어묵면으로 만든 스파게티 등 신규 개발상품 8개와 해초샐러드, 베이커리 어묵, 전복장 등 기존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개선시킨 10개 수산 가공식품을 선정했다.

유럽 스키시장 진출을 목표로 바이어의 요청을 통해 개발한 롤감은 독일 등에서 18만 달러의 초도불량

수출을 이뤄냈다. 어묵면 스파게티 제품은 연평균 10% 성장률을 보이는 북미 글루텐 프리시장을 타깃으로 개발해 미국과 캐나다 대형 식자재 바이어와의 수출 협의 및 유통매장 납품 협의를 진행 중으로 연말에 초도불량 수출이 성사될 전망이다.

특정 단일시장을 목표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사례도 있다. 중국을 타깃으로 개발한 양꼬치맛 조미김

은 기존에 중국으로 수출하던 제품과 차별화해 중국에서 즐겨 먹는 '양꼬치' 풍미를 함유한 것이 특징으로, 해당제품은 SNS를 활용한 활발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현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42만 달러의 초도불량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원물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90% 이상인 전복의 경우 전복장 및 통조림 형태로 상품을 개선해 홍콩 및 베트남 시장에서 11만 달러 규모를 수출했고 오징어젓, 참단젓 등 대표적 수산 가공식품인 젓갈류 역시 저역시 상품으로 미국, 중화권 등에 54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